

Seven signs – Sermon 2 – The first sign: Sermon notes

Title: “The joyful wedding”

Scripture: John 2:1-11

Date preached: June 19th 2022

Scripture: John 2:1-11

1 On the third day there was a wedding in Cana of Galilee, and the mother of Jesus was there. 2 Now both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invited to the wedding. 3 And when they ran out of wine, the mother of Jesus said to Him, “They have no wine.”

4 Jesus said to her, “Woman, what does your concern have to do with Me? My hour has not yet come.”

5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6 Now there were set there six waterpots of stone, according to the manner of purification of the Jews, containing twenty or thirty gallons apiece. 7 Jesus said to them, “Fill the waterpots with water.” And they filled them up to the brim. 8 And He said to them, “Draw *some* out now,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feast.” And they took *it*. 9 When the master of the feast had tasted the water that was made wine, and did not know where it came from (but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 master of the feast called the bridegroom. 10 And he said to him, “Every man at the beginning sets out the good wine, and when the *guests* have well drunk, then the inferior. You have kept the good wine until now!”

11 This beginning of signs Jesus did in Cana of Galilee, and manifest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1 이틀 후에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다. 3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하자. 4 예수님은 “어머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시다” 하고 대답하셨다. 5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일러 주었다. 6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돌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각각 물 두세 통 드는 크기였다. 7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라” 하시자 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다. 8 그리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제 떠다가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어라” 하시자 하인들은 그대로 하였다. 9 잔치 책임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몰랐으나 그것을 떠 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러. 10 “흔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었군요” 하였다. 11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Introduction

I remember attending my first Korean wedding. It was the wedding of one of my wife's friends. Neither the bride nor groom were Christians so the wedding took place as do many Korean weddings at a wedding hall. I had no idea what to expect. I suppose I expected it to be similar to weddings in the UK. How wrong I was. The first things that shocked me was the speed of the actual wedding ceremony. In the UK the wedding ceremony is the focal point of the day. The families have spent a lot of time arranging the service, decorating the church and having all the people beautifully dressed. The marriage service itself contains songs, often a scripture reading, a sermon as well as the exchanging of marriage vows and the all important kiss. Many, but not all marriages

in the UK take place in a church. Even if the participants are not believers they want to enjoy the whole church experience. The church service will go on for about an hour before the formal reception begins. In Korea the marriage ceremony lasted for less than 15 minutes. During this time I looked around and almost no one was paying attention. They were fiddling about or quietly chatting to one another. I was a little shocked. Here were two people making a life time commitment to one another and very few people seemed interested. I later found out that they were all thinking about the buffet. Naturally the buffet was the part I enjoyed best.

The truth is that marriage traditions vary from culture to culture. Each culture does things that are meaningful and significant to them. It would make for an interesting study to compare attitudes to marriage and the way the wedding service is carried out around the world. Today we will be looking at Jesus' first miracle; turning water into wine. It took place at a Jewish wedding. As we will see a Jewish wedding in the first century was very different to a wedding in either the UK or Korea. Before we look at the story in more depth let's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나는 나의 첫 한국 결혼식에 참석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내 아내의 친구 중 한 사람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도 신랑도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많은 한국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결혼식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영국의 결혼식과 비슷할 거라 예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틀렸어.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실제 결혼식의 속도였다. 영국에서는 결혼식이 하루의 초점입니다. 가족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장식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옷을 입도록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예식 자체에는 노래, 종종 경전 읽기, 설교, 결혼 서약 교환 및 가장 중요한 입맞춤이 포함됩니다. 영국의 모든 결혼은 아니지만 많은 결혼이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참가자들은 신자가 아니더라도 교회 전체의 체험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정식 리셉션이 시작되기 전 약 1 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15 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 시간 동안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거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지작거리거나 조용히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약간 충격을 받았다. 여기 서로에게 평생을 약속하는 두 사람이 있었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그들이 모두 뷔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뷔페는 내가 가장 즐겼던 부분이었다. 사실 결혼 전통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각 문화는 그들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태도와 결혼 예식이 전 세계적으로 수행되는 방식을 비교하는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볼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그것은 유대인 결혼식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1 세기의 유대인 결혼식은 영국이나 한국의 결혼식과 매우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Review

Last time I gave you an introduction to this particular sermon series. I spoke about three things. Firstly I gave a brief overview of John's gospel. Secondly I spoke about signs as a New Testament phenomenon, and Thirdly I spoke about John's use of signs in his gospel. Let us briefly review some of the important details from last time.

지난 시간에 이 특별한 설교 시리즈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신약의 현상으로서의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 나는 요한의 복음서에서 표적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중요한 세부 사항 중 일부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John's gospel

John's gospel is unique. The synoptic gospels share many things in common but John stands alone. In fact around 94% of the material we read in John's gospel is unique to him. If we were generalising, we might say that the synoptic gospels focus on what Jesus said and did. John by contrast wants his readers to understand who Jesus was. This helps explain why he selected certain things to include in his gospel. For example John is the only one to mention the seven "I am statements." He also selected seven signs five of which are unique to his gospel.

The gospel of John was we believe the last to be written, probably between 85-95 AD. It's author was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This cryptic description refers to the apostle John, the son of Zebedee and the brother of James. John and James were close friends of the Lord Jesus and both were members of his special inner circle along with Peter. I then went on to talk about signs in the New Testament.

요한복음은 독특합니다. 공관복음은 많은 것을 공유하지만 요한은 홀로 서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는 내용의 약 94%가 요한에게만 들어 있습니다. 일반화하면 공관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복음에 포함 시키기 위해 특정한 것들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은 일곱 개의 "나는 진술이다"라고 언급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복음에 고유한 다섯 가지 표적을 일곱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마도 서기 85-95 년 사이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설명은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주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였으며 둘 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내적 서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계속해서 신약의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Signs in the New Testament

I gave you a useful definition last time of what a sign or miracle is.

A miracle is a divine work of God that transcends human understanding and inspires wonder, displays the greatness of God, and causes people to recognize that God is active in the world. Throughout the pages of the New Testament we see a large number of miracles, signs or wonders. Many of them were performed by the Lord Jesus and formed an important part of his public ministry. Depending on what source you look at Jesus performed between 37 and 42 signs, wonders or miracles. After Jesus returned to the Father we also see miracles and signs performed by the apostles and other people in the early church. The miracles or signs we read about were always performed with a purpose. They were always done to validate or prove that the person doing the miracle was working under God's authority. Only God can intervene and change the laws of nature, therefore anyone performing a miracle must be doing so because God is empowering them. Finally last time I spoke about John's choice of signs.

나는 지난 시간에 표적이나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용한 정의를 주었습니다. 기적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세상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역사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 우리는 많은 기적, 표적 또는 기사를 봅니다. 그들 중 많은 것들이 주 예수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그의 공적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했습니다. 어떤 출처를 보느냐에 따라 예수님은 37~42 가지 표적, 기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오신 후 우리는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행한 기적과 표적도 보

니다. 우리가 읽는 기적이거나 표적은 항상 목적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거나 증명하기 위해 행했습니다. 오직 신만이 자연의 법칙에 개입하고 변경할 수 있으므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이 능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John 의 기호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John's use of signs

John built his gospel around seven signs that provided evidence that Jesus was indeed God. The seven signs are as follows, turning water into wine, healing an official's son, healing a man at Bethesda, feeding the 5000, walking on water, restoring sight to a blind man and raising Lazarus. John himself tells us why he included these signs.

but these (seven signs)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John 20:31)

The signs all point us to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hat is their intention. They ask us three important questions. What is going on here? Who has the power to do such things? And most importantly Who is Jesus?

요한은 예수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일곱 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자신의 복음을 세웠습니다. 일곱 징조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 베데스다에서 사람을 고치는 것, 5000명을 먹이는 것, 물 위를 걷는 것, 소경을 보게 하는 것, 나사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 자신이 왜 이 표징들을 포함시켰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이 일곱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모든 징조는 우리 주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는 누구인가?

Turning water into wine

We turn today to consider the first of the seven signs given to us in John's gospel. It is the miracle of turning water into wine which took place at the wedding in Cana. I plan to do three things in today's sermon. Firstly I want to set the scene and tell you a little about first century Jewish weddings. Secondly we will look at what Jesus did. Finally I want to tell you what this sign really tells us.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곱 가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세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장면을 설정하고 1세기 유대인 결혼식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표지판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 Jewish wedding

Before we look at the sign itself let us spend a little time talking about the setting or occasion. It took place at a Jewish wedding in the first century.

The first thing to say was that most marriages at that time were arranged by the parents. This was

not always the case however, some did marry for romantic love. Marriage unions were arranged when those getting married were quite young. Rabbis taught that for men, 18 was the optimal age to marry. For girls it was much younger. Girls would marry as soon as they physically ready. This means that from the age of around 13 or 14 unions would be made. This would begin what was known as the betrothal period.

The period of betrothal typically lasted for a period of one year. The couple would be considered by the community to be married but would not live together or have sexual relations. It was a very busy time especially for the groom. He would be saving up money and goods and generally preparing for married life. Part of this preparation included building a place for his bride to live. This would often be an extension of his own father's house.

Part of the reason why the betrothal period was so long was because it required a long time to get ready for the wedding. Even today weddings are very expensive affairs. One website I looked at said the average cost for a wedding in the UK in 2021 was £17,300 (27,700,000 won). That might help explain why so many people are just choosing to live together.

A Jewish wedding was a spectacular, long lasting affair. They could last anytime from a few days to up to a week. During this time the groom's family would be expected to provide everything that their guests needed. Food, drink and accommodation. To not be able to provide adequately, or to run out of supplies would bring great shame and embarrassment. It would be a stigma that would hang over the family for many years. It was even said that failure to provide properly might result in the groom being sued.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people were looking very carefully at the groom to see how he would provide for his new bride. If he could not properly manage a week long wedding how could he be expected to care for her and the children in the long term.

The wedding festivities themselves began with a procession of the groom and his companions to the bride's house. They would collect the bride and her companions and then escort them back to the groom's home where there would be a special supper prepared. During this celebration, the parents and friends blessed the couple and the father of the bride drew up a written marriage contract. The couple would then be escorted to a special "bridal chamber" where the marriage would be consummated. On the next day the festivities would continue for as long as a week. Let turn then now to see what Jesus did at the wedding.

표지판 자체를 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배경이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1세기에 유대인 결혼식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해야 할 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결혼은 부모가 주선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는 낭만적인 사랑을 위해 결혼했습니다. 결혼 결합은 결혼하는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 마련되었습니다. 랍비들은 남자의 경우 18세가 결혼하기에 최적의 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소녀의 경우 훨씬 젊었습니다. 소녀들은 신체적으로 준비되자마자 결혼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략 13 또는 14의 나이에서 노동 조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약혼 기간으로 알려진 기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약혼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부부는 지역 사회에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동거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신랑에게는 매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돈과 물건을 저축하고 일반적으로 결혼 생활을 준비합니다. 이 준비의 일부에는 신부가 살 곳을 짓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아버지 집의 확장일 것입니다. 약혼 기간이 긴 이유 중 하나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식은 매우 값비싼 일입니다. 내가 본 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영국의 평균 결혼식 비용은 £17,300(27,700,0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거를 선택하는지 설명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장엄하고 오래 지속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언제든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신랑의 가족은 손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음식, 음료 및 숙박 시설. 적절하게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이 부족하면 큰 수치와 당혹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가족을 떠받치는 낙인이 될 것입니다.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신랑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신랑이 새 신부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매우 유심히 살펴보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째 걸친 결혼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녀와 아이들을 장기적으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축제 자체는 신랑과 그의 동료들이 신부 집으로 가는 행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부와 그녀의 동반자를 모은 다음 특별한 만찬이 준비될 신랑의 집으로 그들을 다시 호송할 것입니다. 이 축하 행사에서 부모와 친구들은 부부를 축복하고 신부의 아버지는 서면 결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부부는 결혼이 완성될 특별한 "신부실"로 안내될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축제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서 결혼식에서 하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 On the third day there was a wedding in Cana of Galilee, and the mother of Jesus was there.

John tells us three pieces of information here. Firstly that these events took place on the third day. This expression has puzzled many scholars. Is John saying that the wedding took place on the third day of the week? This is unlikely. Jewish tradition was that virgins married on the fourth day of the week (Wednesday) and widows on the sixth day of the week (Friday). So it is unlikely that the wedding itself took place on the third day. Most likely John simply means that it is the “third day” after the events he had just narrated in his gospel. However, John is also conveying a theological message. He wants us to think back to the original creation week in Genesis. He is telling us that the gospel he is giving us represents a new creation. So John's creation week looks like this.

John은 여기서 세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첫째, 이 사건들이 셋째 날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많은 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John은 결혼식이 그 주의 셋째 날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가능성이 낮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처녀들은 그 주의 넷째 날(수요일)에 결혼하고 과부는 그 주의 여섯째 날(금요일)에 결혼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결혼식 자체가 3일째 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그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방금 이야기한 사건이 있는 후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신학적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창세기의 원래 창조 주간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새로운 피조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창조주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Day 1	John the baptist's witness (John 1:19-28)
Day 2	John and Jesus meet (John 1:29-34)
Day 3	John meets Andrew and Peter (John 1:35-42)
Day 4	Jesus meets Philip and Nathanael (John 1:43-51)
Day 5	No record of events - Travel?
Day 6	No record of events - Travel?
Day 7	Wedding in Cana (John 2:1-11) (third day after meeting Philip and Nathanael)

You will note that the wedding took place on the seventh day of this new creation week.

So John I think wants to clue us into the fact that Jesus was following God's divine schedule.

Also I think he is reminding his readers of something else amazing that took place on the third day. When Jesus ro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truly manifested His glory to the world.

The Second thing we learn here is that there was a wedding in Cana of Galilee. Cana was a small town about 9 miles north of Nazareth. A small and insignificant place that would be forever remembered as the place Jesus chose to perform His first sign. The third and final thing we learn is that Mary the mother of Jesus was present. This may mean that this was the wedding of a relative, or perhaps that she was a personal friend of either the bride or groom or their respective families.

이 새로운 창조 주간의 일곱 번째 날에 결혼식이 거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한 일정을 따르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서로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나는 그가 독자들에게 사흘 만에 일어난 또 다른 놀라운 일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그는 진정으로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배울 것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9마일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시기로 택하신 곳으로 영원히 기억될 작고 보잘 것 없는 곳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친척의 결혼식이었음을 의미하거나 아마도 그녀가 신부나 신랑 또는 각각의 가족의 개인적인 친구였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 Now both Jesus and His disciples were invited to the wedding.

Jesus and His disciples had also received and accepted an invitation to the wedding. This may have been because of His connection to those getting married, or as was the custom in those days to invite passing teachers or rabbis to weddings. The fact that He was invited tells us that Jesus was not a recluse and most definitely not a “party pooper” or an antisocial killjoy. He willingly and joyfully participated in the normal events of human life. Godliness does not require us to separate ourselves from the world. Christians are often accused of being dry, boring and lacking a zest for life. Sadly I have met some Christians who have come across as being very serious and dull. But this does not need to be the case. We can, and should be full of life, happiness and joy. This was certainly true for the Lord Jesus. That Jesus was also present at a wedding shows that He fully approved of the institution of marriage and saw it as a good thing for people. Though He chose not to marry himself marriage itself is a good thing instituted by God. This wedding celebration however is about to have major problems. Let's read on and see.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결혼식 초대를 받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결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지나가는 교사나 랍비를 결혼식에 초대하는 그 당시 풍습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초대되었다는 사실은 예수가 은둔자가 아니었고 가장 확실히 "파티 깡패"나 반사회적인 킬 조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는 인간 생활의 정상적인 사건에 기꺼이 그리고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경건은 우리 자신을 세상과 분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건조하고 지루하며 삶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슬프게도 저는 매우 진지하고 둔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기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삶과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주 예수님께 해당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결혼식에도 참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결혼 제도를 전적으로 승인하셨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신과 결혼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지만 결혼 자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 축하 행사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려고 합니다. 계속 읽고 봅시다.

3 And when they ran out of wine, the mother of Jesus said to Him, “They have no wine.”

As I said when I spoke about Jewish weddings the groom's family would need to provide for all their guests needs. To run out of either food or drink would be incredibly shameful. It would bring disgrace to a family. This was because people would never forget what had happened and the stigma of this error could haunt a family for many years.

Mary points out the lack of wine to Jesus. We might wonder what it had to do with her, and what she expected Jesus to do about it. Now it is possible that she had some responsibility for the catering. Or simply that as a family member or friend she was concerned about the implications of running out of wine. Who would be able to help in such a situation? Luckily enough for Mary, her son just so happened to be the most wise, intelligent, resourceful person that has, or ever will live on this earth. She seems to have had faith that He would know what to do in this situation.

Let me say a few things here about wine. I do not believe that it was just fruit juice. It was fermented and had become alcohol. We should remember that in the ancient world clean water was difficult to come by. This created two problems for people. Number one, the water was not safe to drink. The only option then was to drink wine. However if you only drank wine you might get drunk which was sin. What did they do to solve these issues? What they did was dilute the wine with water. This meant that the water was now safe to drink and because it was heavily diluted you could drink it freely without becoming drunk. How will Jesus respond to His mother? Let's read on.

내가 유태인 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했듯이 신랑의 가족은 모든 하객의 요구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음식이나 음료가 부족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이 오류로 인한 낙인이 여러 해 동안 가족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기를 기대했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케이터링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로서 그녀는 포도주 부족의 의미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까? 다행히도 그녀의 아들인 Mary는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가장 현명하고 총명하고 재주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실지 아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와인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단지 과일 주스였다고 믿지 않는다. 발효되어 알코올이 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깨끗한 물을 얻기가 어려웠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첫째, 물은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았았습니다. 그때 유일한 선택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만 마시면 취하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한 일은 포도주를 물로 희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이 이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많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취하지 않고 자유롭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4 Jesus said to her, “Woman, what does your concern have to do with Me? My hour has not yet come.”

Here we have Jesus' response to his mother. To our ears to refer to our mothers as “woman” seems rude or a little discourteous. However in the culture of Jesus day this was not rude or disrespectful.

I have heard it described as being similar to the American expression “Ma'am.”

What Jesus was actually doing was marking a transition in their relationship. Up until this point he had lived with her in the family home. We assume that Joseph had died by this time and that Jesus as the first born son had stepped up to help his mother. He had always been a dutiful and loving son. But now He was transitioning to do His Father's work. He would always be her son but now He was prioritising what his Father wanted. So in effect their relationship was changing.

He next says to her, **what does your concern have to do with Me.** This is a Semitic expression which to our ears sounds like a harsh rebuke. What Jesus is basically saying is this, “What is it that concerns you and Me together? Nothing.” The reason that Jesus is mildly rebuking His mother is that she is asking Him to act before his hour has come. This is the first time in John's gospel that this statement appears. But following this it appears in chapters 7, 8, 12, 13 and 17. Jesus came to earth to complete God's plan of redemption. Jesus therefore followed a divine timetable. He would not be rushed or hurried into doing things before their time. His hour would come in His glorious death, resurrection and exhalation to glory. Let's see what happens next.

여기서 우리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귀에는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무례하거나 약간 무례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문화에서 이것은 무례하거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식 "Ma'am"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일은 그들의 관계에 전환점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까지 그는 가족 집에서 그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이때에 죽었고 맡아들로서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나섰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는 항상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전환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항상 그녀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관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관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귀에 거친 책망처럼 들리는 셈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너와 내가 함께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가볍게 꾸짖으시는 이유는 어머니가 어머니의 때가 오기 전에 행동해 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것에 이어 7, 8, 12, 13, 17 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신성한 시간표를 따랐습니다. 그분은 때가 되기 전에 일을 하려고 서두르거나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시간은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과 영광으로의 호령으로 올 것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5 His mother said to the servants, “Whatever He says to you, do it.” 6 Now there were set there six waterpots of stone, according to the manner of purification of the Jews, containing twenty or thirty gallons apiece.

Mary's recorded words in scripture are few. These seven words here in verse 5 are the final time she is heard to speak. What a profound way to bow out. To completely put your faith in Christ and to do whatever He tells you to do. That's good advice. Take it.

Now the Jews were obsessive about washing or cleaning for purification. They would wash their hands, cooking utensils and pots and plates. This was not really about cleanliness, but more about following a pattern of rituals. This required a lot of water which was stored in stone jars because stone did not contract uncleanness. These stone pots would be used by the Lord in the sign He was about to perform.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말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5 절에 나오는 이 일곱 단어는 그녀가 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절하는 심오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조언입니다. 가져. 이제 유대인들은 정결을 위해 씻거나 청소하는 일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손, 조리기구, 냄비와 접시를 씻을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청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의식의 패턴을 따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돌은 더러워지지 않기 때문에 돌 항아리에 많은 물을 저장해야 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려는 표적에서 사용하실 것이었습니다.

7 Jesus said to them, “Fill the waterpots with water.” And they filled them up to the brim.

Jesus tells the servants to fill the stone pots with water. Remember this was for ritual cleaning and was not drinking water. Also please note that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This effectively rules out any possibility that someone added wine at a later point.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솥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의식 청소를 위한 것이며 식수가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그것들을 아낌없이 채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누군가가 나중에 와인을 추가했을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배제합니다.

8 And He said to them, “Draw *some* out now,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feast.” And they took *it*. 9 When the master of the feast had tasted the water that was made wine, and did not know where it came from (but the servants who had drawn the water knew), the master of the feast called the bridegroom.

This being a miracle we do not know at what point the water became wine. Was it as they filled the pots? Or once the water reached the brim? We don't know. It would have been more flashy and dramatic if Jesus had performed some ritual or uttered some magic words. But this is hardly the styl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of course knew that the pots now contained the best wine imaginable. So he told the servants to draw some out and take it to the master of the feast / the chief waiter. The chief waiter's job was to set up the dining area and also to taste the food and drink to ensure it was acceptable to eat.

Upon trying this “new wine” he is amazed and calls over the bridegroom.

이것은 물이 언제부터 포도주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기적입니다. 항아리를 채웠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물이 가장자리에 닿았을 때? 우리는 모른다. 예수님이 어떤 의식을 행하셨거나 어떤 마법의 말씀을 하셨다면 더 화려하고 극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님과 구주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이제 항아리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도주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들에게 얼마를 가져다가 잔치의 주인/ 웨이터에게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수석 웨이터의 임무는 식사 공간을 마련하고 음식과 음료를 맛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마시자 그는 놀라서 신랑을 부른다.

10 And he said to him, “Every man at the beginning sets out the good wine, and when the guests have well drunk, then the inferior. You have kept the good wine until now!”

It makes logical sense to think that the best drink or food is given to the guests when they first arrive. The same applies today. If you invite someone to your house and they are hungry you serve them the freshest tastiest food available. If they are still hungry after this you find the next best thing in the fridge. Eventually you end up giving them the three day old remains from the bottom of the fridge.

So what is happening here seems to the master of the feast as crazy. Why keep this amazing wine back. Surely you would serve the best wine first. I just want to again point out here that I believe this was proper alcoholic wine. However by “good” we are not suggesting this was super strength wine. Rather “good” here indicates wine of the highest, richest most delicious quality. Let us see how this story ends.

손님이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좋은 음료나 음식이 손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그들이 배고프면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합니다. 이 후에도 여전히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서 다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찾습니다. 결국 당신은 냉장고 바닥에서 3일 된 남은 것을 그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잔치의 주인에게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놀라운 와인을 보관해야 하는 이유. 분명히 당신은 최고의 와인을 먼저 제공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적절한 알코올성 와인이라고 여기에서 다시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좋은"이라고 해서 이것이 초강력 와인임을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라는 말은 가장 높고 가장 맛있는 품질의 와인을 나타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봅시다.

11 This beginning of signs Jesus did in Cana of Galilee, and manifested His glory; and His disciples believed in Him.

John tells us here that this was the first sign that Jesus performed. You may have heard of the apocryphal gospel of Thomas. It is known as the infancy gospel of Jesus. It tells a story about the boy Jesus making clay birds and then bringing them to life. The story is also recounted in the Quran. I'm sure that you realise that it's just a myth or fable. This was our Lord's first sign or miracle.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he manifested, showed or revealed His glory. The miracle or sign pointed to who He was. Only God has the power to create from nothing. John concludes here by saying that the sign helped bolster the disciples belief in Jesus. Let us then consider what this sign tells us.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외경 복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유아기 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소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흙으로 만든 새를 만들고 생명을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꾸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화나 우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나타내셨고 계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기적이나 표적은 그가 누구인지를 가리켰다. 오직 신만이 무에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표징이 제자들의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What this sign really tells us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a sign always points beyond itself to something else. The shark warning sign on a beach is letting you know that swimming is dangerous. So the question we have from Christ's first sign is this, what beyond itself is it pointing us towards. I have three things to mention.

내 서문에서 말했듯이 기호는 항상 자신을 넘어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해변의 상어 경고 표지판은 수영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언급할 것이 있습니다.

1. God alone has the ability to create or recreate

When we defined a miracle in our introduction we said that a miracle is a divine work of God that transcends human understanding and inspires wonder. It is often God temporarily suspending the natural laws that govern His universe. This is exactly what we see here. Wine being created from just water instantly. There is no way to humanly explain this. The ability to create from nothing or turn something that exists instantly into something else is God's prerogative. The miracle serves then to demonstrate who Jesus was. No mere man. No merely good or wise teacher. He was God in the flesh. Able to create as He did in the beginning.

서론에서 기적을 정의할 때 기적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신성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그의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물만으로도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와인. 이것을 인간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무에서 창조하거나 즉시 존재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기적은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훌륭하거나 현명한 교사가 아닙니다. 그는 육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하신 것처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2. The wonderful celebration to come

Wedding ceremonies in the ancient world were spectacular events. Occasions full of joy and happiness. How appropriate then that Jesus performed His first sign at a wedding. It acts then as a foreshadowing of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Rev 19). That glorious celebration of all who are in Christ that takes place in the end times.

Also connected to a wedding feast is the concept of wine. Wine is widely viewed in the Bible as a symbol of happiness and joy. So Jesus was illustrating the wonderful time all believers in Him have to look forward to. A time when all sorrow and sadness will be banished. Remember he didn't just create a little wine but an abundance of the best imaginable wine.

고대 세계에서 결혼식은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경우. 그렇다면 예수께서 결혼식에서 첫 표징을 행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양의 혼인 잔치의 예표 역할을 합니다(계 19장).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광스러운 축제입니다. 또한 혼인 잔치와 연결되는 것은 포도주의 개념입니다. 성서에서 포도주는 행복과 기쁨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고대해야 할 놀라운 때를 예증하신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시간. 그분은 단지 적은 양의 포도주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 The old is now finished, it's time for the new

The water and the six stone pots are representative of the old order, of the burdens of Jewish law and custom. The whole ritual of washing and cleansing must have been a tiresome chore. Not to mention the ongoing sacrificial system which had to be performed each year. Remember that the Jewish washing ritual was an external one. It left the hands and outside of the body clean but could never clean the inside. The heart may remain cold and unaffected. This is in essence what is wrong with laws and rituals. But Jesus arrived and replaced that system with something far better. He filled the pots to the brim with something wonderful. Now those who put their faith in Christ are saved through the once and for all sacrifice that He made.

So let us bring things to a close by applying some of these things to us today. We live in difficult

times. The economy is not doing well. Physically we are ageing. We have aches and pains. Our careers may be uncertain. We may have worries and fears about the future. But when we read and think about the turning of water into wine in Cana it should give us hope and joy. When our short lives on earth come to an end we have a glorious eternity with Christ to look forward to.

Finally I want to talk about the emptiness of ritual. It's true that today we do not follow ritualistic washing practices, but still some of us get caught up in ritual and ceremony. We can wrongly think that just doing things is good and pleasing to God. I grew up in The Church of England which is full to the brim of customs and rituals, but sadly little real passion for what matters. The sign in Cana should remind us that God really cares about what's on the inside. He is seeking a total transformation not just the external appearance of change. He wants a clean heart not clean hands!

So let us think deeply about this miracle and what it has to teach us.

물과 여섯 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 율법과 관습의 부담을 나타내는 옛 질서를 나타냅니다. 씻고 씻는 의식 전체가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매년 수행해야 하는 진행중인 희생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대인의 씻는 의식은 외부 의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손과 몸의 밖은 깨끗하게 놔두었지만 속은 결코 씻을 수 없었다. 심장은 차갑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법과 의식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제도를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는 항아리를 멋진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단번에 치르신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적용하는 것을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늙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아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력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에 대해 읽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우리의 짧은 생애가 끝날 때 우리는 고대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영원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의식의 공허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가 의례적인 씻는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중 일부는 의식과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관습과 의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슬프게도 중요한 것에 대한 진정한 열정은 거의 없는 영국 성공회에서 자랐습니다. 가나의 표징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진정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외형적인 변화가 아닌 완전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깨끗한 손이 아닌 깨끗한 마음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과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